

애월읍 어음1리, 1984.7.20., 김영돈, 김지홍 조사.
김승추, 남·76.

* 줄거리 : 태학관(太學館)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고향으로 내려왔다. 아버지의 분부로, 어릴 때 배운 서당선생님께 문안을 갔다. 마침 한 여인이 서당으로 찾아와 시집식구의 비문을 써 주도록 간청하였다.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, 제자에게 쓰도록 했다. 비문을 건네주자, 그 여인은 틀렸다고 하면서 투덜댔다. 그러자 선생님이 부사충(父死忠)하고 자사효(子死孝)하니 충효(忠孝)는 일생불망지의(一生不忘之義)라고 써 주었다. 여인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. 제자는 자기가 학문을 조금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며 반성을 했다. *

어도¹⁾ 스흑교 졸업식에선다. 나가 잊말 좀 말해 보겠다고. 그때 어떻^ه연 나고라(나에게) 학부형 대로 말을 골으랜 ^ه연, 앞의 나가게 됐는 거라. 그러면 그 공부를 많이 ^ه고 졸업^ه는다. 여러분덜은 소흑교 선생님을 잊지 말아사 됐다고.

잇날 워년 부주집의 주식이라. 서당공불 다 모치고, 서월 갓어. 서월서대학, 그때는 성균관(成均館)이요. 서월 대학원을 졸업했어. 성균관을 졸업^ه연 집의 오니까. 지네 부무네안티 인수흘 거거든. 게난 아바지가.

“너 서당 땅기는 선생님안티 강, 거 지금도 글 ^ه르치난.”

펭성 그자 수략초권(史略初卷) 무신 거 맹심보감(明心寶鑑) 이런 거나 ^ه르치는 하르방이라. 그자 아동덩 낭 ^ه르치는 거라.

“거기 가서 인수나 ^ه라.”

그렇게 아이라게? 태학관(太學館)에서 공부^ه고 태학관 졸업^ه여시니까, 불써 왕초라.

“예. 아버님 말씀 따르겠습니다.”

갓어. 간, 인술 드리고. 아 겁나주기게. 주기가 ^ه르친 제조주마는, 춤 대학원 졸업^ه난. 태학관 졸업^ه건 지금 대학원 졸업^ه는 거라. 물론 실력이 그만^ه거든.

“는 나안티 천재(千字)를 배워지마는, 춤 대학원을 졸업^ه난 어디 희망^ه는가?”

하르방이 영^ه난, 그 제조가.

“머, 희망은 주연이 됨 겁니다. 주연이 됨 거요.”

머, 그거 등룡(發龍)뒈난. ^ه나네 조심^ه며는 어떠한 정승 판수 위(位)에 올를 건 수실이라.

경^ه더니, 어떤 여조가 종이 훈장 굽고 붓 굽고 베리(벼루) 굽고, 필묵지연(筆墨紙硯) 다 굽추완, 선생 베우레(뵈러) 앗어.

“누게?^ه”

“예. 넘어가던 여조가 여기 와서 미안합니다.”

“들어오라.”

고, 아무디 간 앗안. 하늘 천(天) 따지(地), 하늘 천^ه는 것이 잇날은 다 그래요.

“그런거 아이라, 씨아바지 죽어. 아, 이거 장수를 지내자니 수나이가 또 죽어.”

1)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.

이거 기가 맥힐 일이라. 씨아방이 죽영 훈들만의 또 주기 남펜이 죽으니. 이거 사름 살지 못하 커라.
“하니 비문(碑文)을 세우겠습니다.”

비문 비석 세울 거라. 훈디 비문 지을라고 수방팔방을 다 돌아바도 읽어.
“읽으니. 선생님 그자 생각해 주십시오.”

하니. 이거 수방팔방 다 돌아도 읽어.

“나 머 일주무식훈다. 거 하늘 천 따 지. 천재나 그르치는 선생이 멀 아느냐?”

“아. 겨도 좀 써 줍서.”

“그러나 기행(기회는) 좋다. 대학원 졸업 훈 자네가. 자네그찌 대학원 졸업훈 관계를 비문 하나
지와(지어)주주.”

“예. 걱정 맙서.”

아. 이젠 대학원하난. 그 여자가 종이 내고, 그 할망이 그쳐온 종이. 창오지 딱 내놓고 봇에 먹
골안. 이놈이야게 워년 대학원훈 늠이난. 착착 써 가는디 일필휘지(一筆揮之)라 훈 게 잇어요. 일
필 봇, 훈봇으로 확하게 써내렸주게. 경하난 그 부인이.

“아이 맞수다.”고.

“나는 그렇게 아이 맞수다.”

고. 좀 낫은 부인이지게. 낫은 부인이라. 턱 뺏자(退字) 낫어.

“허이. 거 종이만 훈장 도망갓주며. 거령청하게.”²⁾

아. 이놈의 할망이 용심(화)을 내거든. 그 하르방이 잇다가,

“거, 어째서 자네는 공부도 만하고 멀핸 훈디. 어떻하연?”

그 사름은,

“아. 나는 생각하연 많이 연구해서 맨들앗읍니다. 경 맨들앗는다. 그 부인이 뺏자하니가 나는
손 떼요.”

손 떼고. 이젠 그 선생이 천재짱 그르치는 선생이 어이가 읽어. 선생이

“다른 종이 내여노라.”

주기 종이 내여난.

“탁. 나 글 훈구를 쓰구데. 아지망 들어바.”

“머 맨들아 줍서.”

“부수충(父死忠)하고, 아버지는 충성에 돌아갔고. 주수효(子死孝)라, 아덜은 효도에 돌아갔다.
이 충효는 일생불망지의(一生不忘之義)라, 충와 효는 일생불망 잊어 불질 아니흘 불망지의라.”

뜻 의째(義字) 딱 쓰난, 이놈의 예펜이 춤을 추어. 술영 무시거영 다 곳당 선생 잘 대접하고.
그거 비문 쓴 거 그정 갓어.

하난 제자가 집의 돌아왔어. 아방신디 강,

“서당에 가난 영영흡디다.”

“거 보라. 사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멀해도. 근본 배운 하르방을 나무리지 말라.”

경햇댄 하여. 영 배우는 사름은 흑자는 아는 척하영 멀흘 게 아니주.

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『제주설화집성(1)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, pp.186-189.

2) 행하는 일과 말 따위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리에 맞지 않고 허황됨을 가리킴.